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재검토: 중국 사서(史書) 의존성 기록을 중심으로*

전용훈†

1. 머리말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여러 가지 중국(中國) 사서(史書)의 기록을 채택하여 사료의 부족과 역사적 맥락의 부재[文籍殘缺, 本末無稽]를 보충했다는 사실은 일찍이 조선 시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¹ 나아가 이 사서의 중국 기록 의존성은 근대 일본의 학자들이 삼국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게 된 단서가 되기도 했다. 천문 기록은 정사(正史)의 천문지(天文志)나 오행지(五行志) 등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삼국사기』에는 천문지나 오행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삼국 각각의 왕대별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본기(“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속에 산재한다. 수록된 천문 기록의 총수는 약 220여 건으로,² 이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0.42.1.29>

*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원하는 해외 파견 연구 기간(2016.09-2017.08)에 수행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sunbijun@hanmail.net

1 徐居正, 『四佳文集』 卷之四, “三國史節要序”, “金富軾, 法陳壽三國志, 撰三國史. 患其文籍殘缺, 本末無稽, 則採摭中國諸書, 或補或證之.”

2 齊藤國治, “新羅·高句麗·百濟의天文記錄”, 『星の手帖』 27 (1985), 96-97 참조. 사이토(齊藤國治)에 따르면, 삼국 시대 천문 기록의 총 수는 225건으로, 고구려 32건, 백제 58건, 신라 135건이다. 종류별로는 日食 67회, 月食 0회, 月星의 食犯 20회, 行星의 合犯 12회, 太白晝見 8회, 老人星 1회, 彗孛 59회, 流隕(유성과 운성) 41회, 白·赤氣 1회, 日月薄蝕 3회, 白虹 3회, 日暈·幻日 5회이다. 『고려사』가 약 3.5년에 1회의 일식을 기록한 것에 비해 『삼국사기』는 약

가운데 일식 기록은 중국 기록 의존성이 명백히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총 67개의 일식 가운데 단 2개만이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을 뿐, 나머지 65개의 기록은 모두 중국 사서에서 동일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³ 행성과 다른 천체의 접근, 혜성이나 유성의 출현 같은 다양한 천문 현상의 기록에서도 중국 기록 의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천문 기록이 중국 기록과 상관없이 삼국에서 독자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⁴

『삼국사기』 천문 기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모두 중국 사서 의존성의 여부, 즉 중국 사서를 전제한 기록인가 아니면 삼국의 독자 기록인가 하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삼국사기』 천문 기록 가운데 중국 기록 의존성을 보이는 것들과 독자성을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기록 의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존의 정도와 의존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일식 기록처럼 중국 기록 의존성이 완전히 합의된 경우에도, 이것이 삼국에서 기록된 원 사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 사료가 전혀 없이 중국 기록만을 차용한 날조라고 매도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 기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모두 의존성 혹은 독자성을 배타적으로 입증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필자의 관점은 위와 같은 선행 연구와 전혀 다르다. 필자는 중국 사서 의존성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전제로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성격, 혹은 그 구성 형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천문 기록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형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국 사서 의존성 기록을 중심으로, 삼국에서 천문 현상이

15년에 1회의 일식을 기록한 것을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삼국 시대 천문 기록의 총수는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식 기록의 중국 기록 의존성은 1921년 일본의 이이지마(飯島忠夫)에 의해 최초로 논의되었다. 飯島忠夫, “三國史記の日食記事に就いて”, 『東洋學報』 15:3 (1921), 410-424 참조. 이이지마의 글은 飯島忠夫, 『支那古代史と天文學』 (東京: 第一書房, 1939), 311-29; 飯島忠夫, 『飯島忠夫著作集 3: 支那古代史と天文學』 (東京: 第一書房, 1982), 126-140 등에 재수록되었다.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원 논문(1921)의 쪽수를 표시함.

4 박창범·라대일, “삼국 시대 천문 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 사실 검증”, 『한국과학사학회지』 16:2 (1994), 167-202 참조. 이 논문은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이 중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천문 현상을 관측·기록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이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발생 당시에 어떻게 관측 기록되었으며, 이 기록은 『삼국사기』 편찬 시까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나아가 이 기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삼국사기』에 기재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필자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중국 사서 의존성 천문 기록에 대해, 우선 삼국에서 독자적으로 축적되고 전승된 기록이 존재하였으며, 이 기록은 『삼국사기』 편찬 시에 중국 사서에서 동일한 현상의 기록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채록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역일과 성좌 명)가 결합되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2.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일본의 고대사를 현창하려는 목표를 지녔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삼국사기』의 기록 특히 삼국 초기의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조작설” 혹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설”이 형성되었다.⁵ 이런 주장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쓰다(津田左右吉), 마에마(前岡恭作), 오오타(太田亮), 이마니시(今西龍), 미시나(三品彰英), 이케우치(池内宏), 스에마츠(末宋保和), 이노우에(井上秀雄) 등 당시로서는 상당한 학술적 권위를 지녔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거듭 주장되면서 학계에서는 거의 정설로 굳어졌다. 1970년대부터 한국인 학자들의 의해 이들의 입론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국의 학계에서도 거의 정설로 정착하였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⁶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은 바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조작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그 사료적 가치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이지마 타다오(飯島忠夫)는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을 중국 사서의 기록과 대조·분석

5 최초는 1884년에 나가 미치요(那珂通世)가 쓴 “朝鮮古史考”로 알려져 있다. 삼국 시대 초기 기록 불신설에 대해서는 최재석, “三國史記 初期記錄은 과연 造作된 것인가: 소위 「文獻考證學」에 의한 三國史記批判의 정제”, 『한국학보』 11:1 (1985), 13-40 참조.

6 필자의 관전으로는, 한국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최재석이 일본인 학자들이 제시한 입론의 근거가 문헌고증적인 견지에서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과 함께 『삼국사기』 초기 기록 조작설은 일본인 학자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 고대사를 정통으로 세우고자 하는 불순한 정치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임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최재석, “三國史記 初期記錄은 과연 造作된 것인가: 소위 「文獻考證學」에 의한 三國史記批判의 정제”, 『한국학보』 11:1 (1985), 2-61 참조.

하여 이 학설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⁷ 그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총 67개의 일식 기록을 중국 사서의 기록과 일일이 대조·확인한 뒤 그것이 “중국의 기사(記事)를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넣은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⁸ 나아가 그는, 기원전의 시기에 일어난 일식 기사는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로부터의 채록(採錄)”이며,⁹ 고구려 양원왕 10년(554)의 독자적인 일식 기록은 “중국의 정사(正史)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완전한 두찬(杜撰)”이라고 치부하였다.¹⁰ 이로써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은 삼국 시대 초기 기록 조작설의 새로운 근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일본의 오오타니(大谷光男)와 사이토(齊藤國治) 등이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을 다시 분석하거나 분석 대상을 천문 기록 전체로 확대한 연구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 주장하는 방향은 이이지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오타니는 『삼국사기』 일식 기사가 중국 사서의 기록을 복제한 것이라는 이이지마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삼국 독자의 관측 기록을 일부 인정하였다.¹¹ 그는 특히 신라 애장왕 2년(802)의 “일당식불식(日當食不食)”은 신라에서 실제 관측한 기록이며, 고구려 양원왕 10년(554)의 일식 기록은 중국 사서에 없는 기록이므로, 고구려 본래의 기록으로 추정하였다. 요컨대 고대 삼국의 일식 기록은 대체로 중국 사서에서 채록(採錄)한 것이지만, 삼국에서 실제로 관측한 결과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토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이외에 천체의 능범(陵犯), 태백주현(太白晝見), 해폐(隳幸), 유운(流隕)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의 실현 여부를 현대적인 계산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는 일식 기사 가운데 6세기 이전의 것은 모두 중국의 사서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 그는 나아가 천문 기록 전체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는 4세기 말까지, 신라의 경우는 5세기 말까지의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선배 학자들의 주장을 재확인 하였다.¹³

7 이이지마는 이마니시(今西龍)와 마에마(前間恭作)의 설에 의지하여, 『삼국사기』의 기록 가운데 신라는 제17대 내물왕 즉위(356) 이전, 고구려는 제17대 소수림왕 즉위(371) 이전, 백제는 제12대 계왕 즉위(344) 이전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飯島忠夫, “三國史記の日食記事に就いて” (각주 3), 413 참조.

8 飯島忠夫, “三國史記の日食記事に就いて”, 424.

9 같은 글, 414.

10 같은 글, 421.

11 大谷光男, “三國史記の日食記事について”, 『朝鮮學報』 62 (1972), 3-4 참조.

12 齊藤國治, “新羅·高句麗·百濟の天文記錄” (각주 2), 98.

1970년대 말부터 한국 과학사학계에서는 일본인 학자들의 선행 연구에 자극을 받아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독자성 여부가 중요한 탐구 주제로 대두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 학자들은 독자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제출하였다.¹⁴ 김용운·김용국은 일식 기록에 대해, 삼국 중 2국에서 동시에 관측된 일식이 있고,¹⁵ 일식 기록의 분포가 시대별로 균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조작하거나 중국 사서에서 옮겨와서 첨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¹⁶ 박성래도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이 모두 중국 사서에서 옮겨온 것이라는 이이지마의 주장에 반대하였다.¹⁷ 그는 특히 『삼국사기』의 일반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일식 기록에 다수 등장하는 역일 간지(曆日干支)에 주목하고, 이것은 『삼국사기』의 찬자가 중국의 사서를 참고하여 확정해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⁸ 박성래는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이 중국 사서를 참고해서 미비한 정보를

¹³ 같은 글, 103. 사이토는 그 후 오자와(小澤賢二)와 공동으로 펴낸 책에서도 삼국의 일식 기사가 중국의 기록을 옮겨온 것이라는 이이지마의 주장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齊藤國治·小澤賢二, 『中國古代の天文記録の檢證』(東京: 雄山閣, 1992) 참조.

¹⁴ 천문학자 이은성과 현정준은 한국의 역대 일식을 천체 역학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천체역학적인 분석에 중심으로 둔 것이지만, 『삼국사기』 일식 기록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정준, 『韓國의 古代日食記録에 關하여』, 『동방학지』 22 (1979), 105-139; 이은성, “한국의 일식 기록(日食記録)의 과학적 처리”, 『한국과학사학회지』 2:1 (1980), 60-84.

¹⁵ ① 고구려 태조왕 72년/신라 지마이사금 13년(124년), ② 백제 고국천왕 8년/신라 벌휴이사금 3년(186년).

¹⁶ 김용운·김용국, 『한국수학사』(인간과 과학사, 1977), 31-38. 일식 기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 Kim Yong-woon, “A Study of the Records of Solar Eclipses in Samguksagi (I),” *Korea Journal* 16:7 (1976), 30-36; Kim Yong-woon, “A Study of the Records of Solar Eclipses in Samguksagi (II),” *Korea Journal* 16:8 (1976), 37-44.

¹⁷ 한국 고대 천문학에 대한 박성래의 연구는 1977년에 미국 하와이대학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로, 이것은 한국연구원(Korea Research Center)에서 발행하는 영문 저널에 연재된 4편의 논문(no.46(1977), no.47-48-49(1978)) 가운데 첫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1998년에 발행된 단행본에 재수록 되었다. Seong Rae Park, “Portent and Politics in Early Yi Korea, 1392-1519,”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77); Seong-rae Park, “Portentography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46 (1977), 53-71; Park Seong-rae, *Portents and Politics in Korean History* (Seoul: Jimundang Publishing Company, 1998), 13-36. 본 논문에서 박성래의 인용은 1998년 출간된 단행본에 의거한다.

¹⁸ 박성래는, 보통의 기록에는 기록 시점의 정보로 계절(春·夏·秋·冬)이나 월(月)만 표시하는 데에 비해, 『삼국사기』의 재이 기록에는 무려 74개에 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56개의 일식에는 회삭 간지(晦朔干支)가 표시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박성래의 주장은 역

첨가하여 만든 기록일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부터 없는 기록을 날조하여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⁹

천문학자 박창범·라대일은, 『삼국사기』 일식 기록의 중국 기록 의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삼국사기』의 모든 천문 기록이 삼국에서 행한 독자적 관측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²⁰ 이들은 일본의 사이토가 수행한 것처럼, 현대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 현상의 실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각 천문 현상에 관한 동일 기록을 중국 사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일식, 행성의 움직임과 별자리와의 관계, 혜성의 출현 등에 관한 기록의 경우 거의 50퍼센트 이상 중국 사서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유성과 운석, 행성과 달의 위치 관계, 태백주현 등의 기록은 거의 모두가 독자 관측이라고 주장했다.²¹ 특히 이들은 삼국 각각에서 기록된 일식에 대해 최적 관측지(the optimal observation area)를 추정하여, 『삼국사기』의 모든 일식 기록이 중국 사서의 기록과 관련 없이 삼국 각각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제 관측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²² 요컨대 중국 기록과의 일치 여부는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독자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다.

한편, 박창범·라대일은 일식의 최적 관측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삼국의 왕경(수도)이 모두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²³ 이는 한국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이 출간된 직후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전용훈은 일식의 최적 관측지를 찾아 일식이 관측된 위치(왕경, 수도)를 확정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⁴ 특히, 추정

일이 기재된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과 일반 기록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유추한 것으로, 필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역일 기록이 있는 기사 전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Park Seong-rae, *Portents and Politics in Korean History*, 20.

¹⁹ 독자적 일식 기록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박성래 또한 삼국 중 2개국이 동시에 관측한 일식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²⁰ 박창범·라대일, “삼국 시대 천문 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 (각주 4), 182-195.

²¹ 같은 글, 170 (그림1) 참조.

²² 같은 글, 182-199.

²³ 같은 글, 190-193. 이런 연구 결과는 박창범, 『동아시아 일식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5-17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 논문은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에 재수록 되었다.

²⁴ 전용훈,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만남: 자연과학적 역사연구”, 『자연과학』 20 (2006), 71-84. 전용훈의 글은 박창범·라대일의 연구를 재수룩한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사용할 일식의 사례가 매우 적고 시대적으로도 균질하지 않을 경우, 표본에 따라 최적 관측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²⁵ 나아가 이런 지적을 지지해주는 연구가 천문학자 이기원(Ki-Won Lee)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그는 박창범·라대일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록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식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 관측지를 추정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not an absolute method) 사실”을 보였다.²⁶ 김일권도 박창범·라대일의 연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일식 관측 최적지를 추정하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위치가 중국 대륙이었다는 결과는 오히려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전체가 모두 중국사의 기록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²⁷ 반면 양홍진은 박창범·라대일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219년 이전의 일식은 고대 고구려의 주 활동 무대였던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관측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⁸

2000년대 초까지 한중일 각국에서 사서에 기록된 천문 현상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천체역학적 연구와 역사상의 역일(曆日) 정보 등이 많이 축적되었다.²⁹ 나아가 동아시아의 다양한 기록을 전자 정보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삼국사기』의 기록과 중국 사서의 기록을 대조·분석하는 작업이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김일권과 전덕재가 각각 연속으로 제출한 몇 차례의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이 발전된 연구 환경에 힘입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출되었다. 하

2002)에 대한 서평으로 작성된 것이다.

²⁵ 전용훈,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만남: 자연과학적 역사연구”, 78-83.

²⁶ Ki-Won Lee, “A Study of Solar Eclipse Records during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Journal of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9:5 (2008), 408-418 중 417.

²⁷ 김일권, “『삼국사기』 일식 기록의 한중 사료 대조와 일식 상황 비교”, 『신라사학보』 37(2016), 140-142. 김일권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은 모두 중국의 사서에서 전사(傳寫)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²⁸ 양홍진, “역사 천문 기록을 통해 살펴본 고구려 일식 관측지”, 『인문과학연구』 60 (2019), 210, 218 등 참조.

²⁹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北京天文臺 主編, 『中國古代天文記錄總集』(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張培瑜, 『三千五百年曆日天象』(鄭州: 河南教育出版社, 1990); 劉次沅·馬莉萍, 『中國歷史日食典』(北京: 世系圖書出版公司, 2006); 劉次沅, 『諸史天象記錄考證』(北京: 中華書局, 2015); 안영숙·이용복 외, 『삼국 시대 일식도: BC 57- AD 935』(한국천문연구원, 2005); 박창범, 『동아시아 일식도』(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渡邊敏夫, 『日本·朝鮮·日本, 日食月食寶典』(東京: 雄山閣, 1979); 齊藤國治·小澤賢二, 『中國古代の天文記錄の檢證』(각주 13).

지만 이들의 연구 시각은 이전의 한국인 학자들과 달리,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과 동일한 기록이 중국 사서에 있는 경우, “중국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전재(轉載)”³⁰했다거나 중국 사서에서 “인용하여 첨입”³¹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중국 기록 의존성이 있는 천문 기록에 대해 애초에 삼국에서 관측되고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김일권은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67개 전체에 대해 현대적인 계산 결과와 중국 사서의 기록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일식의 실현 여부, 관측 가능 여부, 기록 오류의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이지마의 연구 결과와 거의 다름이 없다. 그는 “『삼국사기』가 중국사와 무관하게 일식 사건을 독립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삼국사기』가 “거의 전적인 중국사 일식 기록 의존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³² 나아가 그는 『삼국사기』가 중국 사서의 기록을 전사한 이유로, 신라와 백제의 경우 “시조와 건국의 신성성을 현창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들었다.³³

김일권은 『삼국사기』의 성변 관련 기록도, 중국 사서에 동일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현상의 실현 여부, 역일 표시의 여부, 성좌(星座) 체계를 사용한 기록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³⁴ 그 결과, 천변 현상의 기록은 삼국 모두에서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독자 기록의 비율은 대체로 시대가 뒤로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대체적인 추세는 사이토와 박창범·라대일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김일권의 분석 가운데 필자의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그는 백제의 성변 기록에 대해, “성변 기록 중 역일 간지가 있거나 별자리 표기가 있어 정밀성을 지닌 것은 모두가 『후한서』, 『진서』 등 중국사 기록과 동일한 상황”이라거나,³⁵ 신라의 경우 2세기까지의 초기 신라에서 성좌명이 표시

30 김일권, “『삼국사기』 일식 기록의 한중 사료 대조와 일식상황 비교”, 181.

31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대구사학』 120 (2015), 136.

32 김일권, 앞의 글, 133, 202 등 참조.

33 같은 글, 140.

34 김일권, “『삼국사기』 고구려·백제의 별자리 목록과 천문성변기록 분류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399-469; 김일권,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별자리 목록과 천문성변기록 분류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567-743.

35 김일권, “『삼국사기』 고구려·백제의 별자리 목록과 천문성변기록 분류 연구”, 456.

된 천변 기록 9건이 모두 『한서』와 『후한서』에서 동일 기록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³⁶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삼국사기』의 5세기 이전 천문 기록 가운데 역일 간지와 성좌 명 표시는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중국 사서를 참고하여 첨가한 것이라고 보는데, 신라와 백제의 기록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특징은 필자의 추론을 지지해준다.

전덕재는 사신 파견과 책봉·조문 사절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삼국사기』 텍스트의 성립 과정을 탐구하면서 천문 기록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기 신라의 천문 기록에 대해, 대체로 중국 사서에서 인용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파나 태백주현과 같이 중국 사서에서 대응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관측한 사례로서 개수 『국사(國史)』 또는 『구삼국사(舊三國史)』에서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⁷ 중·하대 신라의 천문 기록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찬자는 사신 파견과 책봉·조문 사절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일식과 일부 천변 관련 기록을 중국 사서에서 인용하여 신라 본기에 첨입”했다고 본다.³⁸ “백제 본기”의 경우, 중국 사서에서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일식·성변 관련 기록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백제 자체의 전승 기록이 소략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³⁹ “고구려 본기”의 경우, 중국 사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천변 기록이 거의 없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기록들은 “고구려 자체의 전승 기록에서 인용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⁴⁰ 나아가 그는, “고구려 본기의 일식 관련 기사는 고구려 자체 전승 기록에 전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간지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사서의 기록을 참조하여 추가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⁴¹

한편, 전덕재가 삼국의 “자체 전승 기록”이 『삼국사기』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간지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사서의 기록을 참조하여 추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필자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 김일권,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별자리 목록과 천문성변기록 분류 연구”, 589.

37 전덕재, “『三國史記』 新羅本紀 上古期 記錄의 原典과 改撰”, 『東洋學』 56 (2014), 24.

38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136 및 156과 157의 <표4> 참조.

39 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原典에 대한 검토: 중국 사서와 국내 자료 인용 기록을 중심으로”, 『史學志』 53 (2016), 71.

40 전덕재,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 『東洋學』 64 (2016), 68-69.

41 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原典에 대한 검토: 중국 사서와 국내 자료 인용 기록을 중심으로”, 71.

현재 학계에서는, 『삼국사기』가 고려 초(목종대, 997-1009)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저본(底本)으로 하면서도 당시까지 전승된 여러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² 나아가 『삼국사기』에는, 원 사료에는 없지만 편찬 당시의 관념을 반영하여 원 사료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는 첨가 서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³ “신라 본기”의 경우 “『삼국사기』의 찬자들이 고기류나 중국 사서 등에서 발췌하여 새로 첨입(添入)하였거나 그들이 임의로 산삭(刪削) 또는 개서(改書)하였다고 추정되는 기록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⁴⁴ 『삼국사기』의 기록 전체에 대해 “소략한 국내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중국 사서를 적극 활용”한 것이 확인되며,⁴⁵ 특히 대중국 관계 기사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서의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상세한 기록을 기본으로 삼아 다른 기록을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삼국사기』의 편찬 시에 원 사료 역할을 한 『구삼국사』와 그 외 전승 사료의 존재, 그리고 중국 사서를 활용한 사실들을 감안해볼 때, 필자는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도 일반 기록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찍이 박성래 또한 일식 기록의 성립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한 적이 있다.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에 “날이 어두워졌다”는 식의 초보적이고 불분명한 일식 기록이 있었는데, 김부식은 중국의 사서와 대조하여 이런 기록들을 실제의 일식 기록으로 확정하고 날짜까지 확정했다는 것이다.⁴⁷ 그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42 “신라 본기”의 기록에 대해, 『國史』→『舊三國史』→『三國史記』의 기록이 계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현재 학계에서 정설로 수용되어 있다. 高寬敏, 『三國史記의原典的研究』(東京: 雄山閣, 1996), 50-66;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의 원전과 개찬”, 『東洋學』 56 (2014), 3.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의 원전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전덕재, “『三國史記』新羅本紀 上古期 記錄의 原典과 改撰”; 전덕재, “『三國史記』新羅本紀 중고기 기록의 原典과 完成”;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전덕재, “『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 전덕재, “『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原典과 撰述: 長壽王代 이후 기록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105 (2016), 33-78; 전덕재, “『三國史記』百濟本紀 記錄의 基本原典과 改撰”, 『역사와 담론』 80 (2016), 149-192; 전덕재, “『三國史記』百濟本紀의 原典에 대한 검토”

43 정구복, “삼국사기의 원전 자료”, 정구복 외,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0-15.

44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134-135.

45 같은 글, 136. 전덕재는 선행 연구를 통해 “고구려 본기”와 “백제 본기”에 유사한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가 미진한 “신라 본기”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46 深津行徳,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보이는 中國史書의 引用에 관한 所論”, 『청계사학』 8 (1991), 41-72 참조.

분명히 김부식이 근거를 삼은 초보적인 기록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김부식이 아무런 근거할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날조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삼국사기』에 기재되어 있는 천문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재되는 과정에서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과 대조·확인을 거쳐 보다 정밀한 정보가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⁴⁸ 사실 중국 사서의 정보가 『삼국사기』 천문 기록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은 박성래 이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일권은 “백제 본기”의 천문 기록 가운데 역일 간지와 성좌 명 표시 기사에 대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고, 전덕재 또한 역일 간지가 중국 사서를 참고하여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중국 기록 의존성을 보이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기록—(1) 역일 간지가 표시된 천문 기록, (2) 성좌 명이 표시된 천문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 사서의 기록과 대조·분석하여, 중국 사서 의존성 기록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3. 역일 간지(曆日干支)가 표시된 천문 기록의 분석

『삼국사기』에서 역일 간지가 표시된 기록은 주로 일식 기록이며, 일부의 천문 기록에도 역일 간지가 부기되어 있다.⁴⁹ 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에 『삼국사기』에 기재된 전체 67회의 일식 기록을 중국 사서의 기록과 함께 정리하고, <표 2>에 일식 기록 이외에 역일 간지가 부기된 천문 기록을 정

47 Park Seong-rae, *Portents and Politics in Korean History*, 21-22.

48 필자가 원 사료에 정보를 첨가하는 일이 다른 시기가 아닌 『삼국사기』의 편찬 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유는, “신라 본기” 하대의 일식 기사에 『신당서』 천문지와 같은 삼국 시대 이후의 중국 사서의 기록이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전덕재는 중국 사서에서 확인하여 정보를 첨가한 사람과 시기는 『삼국사기』 편찬 시의 찬자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158 참조. 반면에 김일권은 중국 사서에 수록된 일식 기록을 『삼국사기』에 삽입한 주체는 김부식이 아니라고 보며, 그 근거로 일식 기록의 빈도가 시대별로 불균질한 것을 든다. 12세기의 김부식은 충분히 발달한 천문학적 지식을 지녔을 것이므로, 이처럼 시대별로 고르지 않게 일식 기록을 삽입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김일권, “『삼국사기』 일식 기록의 한중 사료 대조와 일식상황 비교”, 223-224 참조.

49 역일 간지는, 백제 개루왕 10년(137) 조의 “秋八月庚子, 熒惑犯南斗一”에 표시된 “八月庚子”처럼 날짜를 간지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二月二十一日”처럼 숫자로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는 논하지 않는다.

리하였다. 필자의 조사 결과로는,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에는 총 77의 역일 간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62개가 일식 기록에 있다.⁵⁰ 사실 『삼국사기』에서 역일 간지는 주로 천문 기록에 부기되어 있을 뿐, 일반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일권의 조사에 따르면, “고구려 본기”와 “백제 본기”에는 일반 사건의 기록에 역일 간지를 부기한 경우가 전혀 없으며, “신라 본기”의 경우에도 일반 사건에 역일 간지가 표시된 경우는 4회뿐이다.⁵¹ 필자가 역일 간지가 표시된 기록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역일 간지가 중국 사서로부터 채용되어 첨입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식은 대체로 삭일(朔日) 혹은 회일(晦日)에 발생하는데,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가운데 62회의 기록이 “이월 병자삭(二月丙子晦)” 혹은 “삼월 임신삭(三月壬申朔)” 등으로 표시된 회삭 간지(晦朔干支, 회삭 여부와 역일 간지를 동시에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67회의 일식 기록 가운데 역일 간지가 없는 기록은 총 5회인데, 이 가운데 고구려 차태왕 20년(165, SEG-6)의 일식은 역일 간지가 기재된 개루왕 38년(165, SEB-5)의 일식과 동일한 기록이므로, 실제로 역일 간지가 없는 일식 기록은 총 4회뿐이다. 또 이 4회 가운데 회삭(晦朔)만 표시한 경우가 2회(SEG-11: 고구려 양원왕 10년, SES-19: 신라 첨해왕 10년)이고, 회삭조차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회(SEG-1: 고구려 태조 62년), SEG-2: 고구려 태조 64년)이다.

표 1.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과 중국 사서 기록의 대응 양상

순번	발 생 년 (서기)	회삭 및 역일 간지	기사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	비고
고구려					
SEG-1	태조 62(114)	春三月	日有食之	『後漢書』安帝紀. 元初元年 三月癸酉, 日有食之 *三月癸酉는 12일임. 일식 불발능. *劉次沅은 永初元年(107) 三月癸卯의 誤記	회삭간지: 『삼국사기』 없음/중국 사서 있음.

⁵⁰ 박성래는 역일 간지가 있는 천문 기록의 총수는 74이며, 일식 기록에 그 중 6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Park Seong-rae, *Portents and Politics in Korean History*, 20.

⁵¹ 김일권, “백제 무령왕릉 묘지석의 대명력 사용 문제와 「백제본기」 일식 기록의 역일 재검토”, 『백제학보』 28 (2018), 184-185.

				로 봄. (劉次沅 2015, 28)	
SEG-2	태조 64(116)	春三月	日有食之	『後漢書』安帝紀. 元初三年, 三月辛亥,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元初三年, 三月二日辛亥, 日有蝕之, 在婁五度, 史官不見, 遼東以聞.	회색간지: 『삼국사기』 없음/ 중국 사서 있음. *辛亥는 3월 2일.
SEG-3	태조 72(124)	秋九月庚申晦	日有食之	『後漢書』安帝紀. 安帝延光三年. (九月) 庚申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安帝延光三年, 九月 庚寅晦, 日有蝕之, 在氐十五度. (*庚申晦가 正)	*신라 SES-10과 중복
SEG-4	차대 4(149)	夏四月丁卯晦	日有食之	『後漢書』桓帝紀. 乾和三年, 夏四月丁卯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乾和三年, 夏四月丁卯晦, 日有食之, 在東井二十三度.	
SEG-5	차대 13(158)	夏五月甲戌晦	日有食之	『後漢書』桓帝紀. 延熹元年, 夏五月…甲戌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延熹元年, 夏五月甲戌晦, 日有食之, 在柳七度.	
SEG-6	차대 20(165)	春正月晦	日有食之	『後漢書』桓帝紀. 延熹八年, 春正月丙申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延熹八年, 春正月丙申晦, 日有食之, 在營室十三度.	백제 SEB-5에서 正月丙申晦 확인.
SEG-7	신대 14(178)	冬十月丙子晦	日有食之	『後漢書』靈帝紀. 光和元年. 冬十月丙子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光和元年. 冬十月丙子晦, 日有食之, 在箕四度.	

SEG-8	고국천 8(186)	夏五月 壬辰晦	日有食之	『後漢書』靈帝紀/五行志. 中平三年, 五月壬辰晦, 日有食之.	신라 SES-14와 중복
SEG-9	산상 23(219)	春二月 壬子晦	日有食之	『後漢書』獻帝紀/五行志. 建安二十四年, 二月壬子晦, 日有食之.	
SEG-10	서천 4(273)	秋七月 丁酉朔	日有食之	『晉書』武帝紀/天文志. 太始九年, 秋七月丁酉朔, 日有食之.	
SEG-11	양원 10(554)	冬十二月 晦	日有食之	독자 기록	일식 불가능
백제					
SEB-1	은조 6(전13)	秋七月 辛未晦	日有食之	『漢書』成帝紀/五行志. 永始四年, 秋七月辛未晦, 日有食之.	
SEB-2	다루 46(73)	夏五月 戊午晦	日有食之	『漢書』明帝紀. 永平十六年, 夏五月戊午晦, 日有蝕之. 『漢書』五行志. 永平十六年, 夏五月戊午晦, 日有蝕之, 在柳十五度.	
SEB-3	기루 11(87)	秋八月 乙未晦	日有食之	『後漢書』章帝紀. 元和元年, 八月乙未晦, 日有蝕之. 『後漢書』五行志. 元和元年, 八月乙未晦, 日有蝕之, 史官不見, 佗官以聞, 日在氐四度.	
SEB-4	기루 16(92)	夏六月 戊戌朔	日有食之	『後漢書』和陽帝紀. 永元四年, 六月戊戌朔,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永元四年, 六月戊戌朔, 日有食之, 在七星二度.	
SEB-5	개루 38(165) 원문: 二十八年 *三十八 이 正.	春正月 丙申晦	日有食之	『後漢書』桓帝紀. 延熹八年, 春正月丙申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延熹八年, 春正月丙申晦, 日有食之, 在營室十三度.	원문은 '개루 왕 28년'이나 『三國史節要』에는 '38년' 임. SEG-6(고구려)와 동일. 일 식 불가능

SEB-6	초고 5(170)	春三月 丙寅晦	日有食之	『後漢書』靈帝紀. 乾寧三年, 三月丙寅晦,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乾寧三年, 三月丙寅晦, 日有食之. 梁相以聞.	
SEB-7	초고 24(189)	夏四月 丙午朔	日有食之	『後漢書』靈帝紀/五行志. 中平六年, 四月丙午朔, 日有食之.	
SEB-8	초고 47(212)	夏六月 庚寅晦	日有食之	『後漢書』獻帝紀/五行志. 建安十七年, 六月庚寅晦, 日有食之.	
SEB-9	구수 8(221)	夏六月 戊辰晦	日有食之	『三國志』魏書/『宋書』五行志/『晉書』天文志. 黃初二年, 六月戊辰晦, 日有蝕之. 『晉書』律曆志. 黃初二年, 六月戊辰晦, 日有蝕之, 加時未日蝕.	
SEB-10	구수 9(222)	冬十一月 庚申晦	日有食之	『三國志』魏書/『宋書』五行志/『晉書』天文志. 文帝黃初三年, 十一月庚申晦, 又日有蝕之.	
SEB-11	비류 5(308)	春正月 丙子朔	日有食之	『晉書』懷帝紀/天文志. 永嘉二年, 春正月景子朔, 日有蝕之. *魏晉時期에 丙을 景으로 개칭.	
SEB-12	비류 32(335)	冬十月 乙未朔	日有食之	『晉書』成帝紀/天文志/『宋書』五行志. 咸康元年, 十月乙未朔, 日有蝕之.	
SEB-13	근초고 23(368)	春三月 丁巳朔	日有食之	『晉書』海西公紀/『宋書』五行志. 太和三年, 三月丁巳朔, 日有蝕之.	
SEB-14	진사 8(392)	夏五月 丁卯朔	日有食之	『晉書』武帝紀/天文志/『宋書』五行志. 太元十七年, 五月丁卯朔, 日有蝕之.	
SEB-15	아신 9(400)	夏六月 庚辰朔	日有食之	『晉書』安帝紀/天文志/『宋書』五行志/『魏書』天象志/『北史』魏	

				本紀. 天興三年, 六月庚辰朔, 日有蝕之.	
SEB-16	전지 13(417)	春正月 甲戌朔	日有食之	『晉書』 安帝紀/天文志/『宋書』 五行志. 義熙十三年, 春正月甲戌朔, 日有蝕之,	
SEB-17	전지 15(419)	冬十一月 丁亥朔	日有食之	『北史』 魏本紀. 泰常四年, 冬十一月丁亥朔, 日有蝕之.	
SEB-18	비유 14(440)	夏四月 戊午朔	日有食之	『宋書』 本紀/五行志/『南史』 宋本紀. 元嘉十七年, 夏四月戊午朔, 日有蝕之.	
SEB-19	개로 14(468)	冬十一月 癸酉朔	日有食之	『宋書』 本紀/五行志/『南史』 宋本紀. 泰始四年, 冬十月癸酉朔, 日有蝕之. 『魏書』 天象志/『北史』 魏本紀. 皇興二年, 十月癸卯朔, 日有食之.	
SEB-20	삼근 2(478)	三月 己酉朔	日有食之	『南史』 宋本紀. 順帝昇明二年, 三月己酉朔, 日有蝕之. *三月은 戊申朔으로 己酉일은 3월 2일임. 『南史』의 誤記.	태평양상의 일식으로 중국에서는 야간 일식이라 관측 불가능. *『삼국사기』는 『南史』의 誤記를 轉寫?
SEB-21	동성 16(494) * 원문은 東城王十七年(495)이나, 十六年이 옳음.	夏五月 甲戌朔	日有食之	『魏書』 天象志/『北史』 魏本紀. 北魏孝文帝太和十八年, 夏五月甲戌朔, 日有蝕之. 『南齊書』 天文志/『南史』 齊本紀. 隆昌元年, 五月甲戌合朔, 巳時日蝕三分之一, 午時光復還.	月朔과 朔日干支(夏五月甲戌朔)를 모두 중국 사서에 일치시키려면, 東城王十六年(494)이어야 함.
SEB-22	무령 16(516)	春三月 戊辰朔	日有食之	『魏書』 天象志/『北史』 魏本紀. 北魏孝明帝熙平元年, 三月戊辰朔, 日有蝕之. 『南史』 梁本紀/『梁書』	

				本紀. 梁武帝天監十五年, 春三月戊辰朔, 日有蝕之, 既.	
SEB-23	성왕 25(547)	春正月 己亥朔	日有食之	『魏書』 天象志/『北史』 魏本紀. 東魏孝靜帝武定五年, 正月己亥朔, 日有蝕之, 從西南角起. 『南史』 梁本紀. 梁武帝太清元年, 春正月己亥朔, 日有蝕之.	
SEB-24	위덕 6(559)	夏五月 丙辰朔	日有食之	『陳書』 本紀. 陳武帝永定三年, 五月丙辰朔, 日有蝕之. 『南史』 陳本紀/『隋書』 天文志. 陳武帝永定三年, 五月丙辰朔, 日有食之.	
SEB-25	위덕 19(572)	秋九月 庚子朔	日有食之	『周書』 帝紀/『北史』 周本紀. 北周武帝建德元年, 九月庚子朔, 日有蝕之. 『陳書』 本紀/『南史』 陳本紀. 陳宣帝太建四年, 九月庚子朔, 日有蝕之.	
SEB-26	위덕 39(592)	秋七月 壬申晦	日有食之	『隋書』 帝紀/『北史』 隋本紀. 隋文帝開皇十二年, 七月壬申晦, 日有蝕之.	
신라					
SES-1	혁거세 4(전54)	夏四月 辛丑朔	日有食之	『漢書』 宣帝紀. 五鳳四年, 夏四月辛丑晦, 日有蝕之. 『漢書』 五行志. 五鳳四年, 四月辛丑朔, 日有食之, 在畢十九度.	辛丑朔이 正.
SES-2	혁거세 24(전34)	夏六月 壬申晦	日有食之	『漢書』 元帝紀/五行志, 元帝建昭五年. 六月 壬申晦, 日有食之	
SES-3	혁거세 30(전28)	夏四月 己亥晦	日有食之	『漢書』 成帝紀. 河平元年, 夏四月己亥晦日有	중국의 기록에 따라 食分이

				蝕之, 既. 『漢書』五行志. 河平元年, 四月己亥晦, 日有食之, 不盡如鉤, 在東井六度, …日蚤食時, 從西南起. 『漢書』外戚列傳. 四月己亥, 日蝕東井, 轉旋且索, 與既無異.	서로 다름.
SES-4	혁거세 32(전26)	秋八月 乙卯晦	日有食之	『漢書』成帝紀. 河平三年, 秋八月乙卯晦, 日有蝕之. 『漢書』五行志. 河平三年, 八月乙卯晦, 日有食之, 在房.	
SES-5	혁거세 43(전15)	春二月 乙酉晦	日有食之	『漢書』成帝紀/五行志. 永始二年, 二月乙酉晦, 日有蝕之. 『漢書』五行志. 永始二年, 二月乙酉晦, 日有食之. 谷永以京房易占對曰, 今年二月日食, 賦歛不得, 度民愁怨之所致也. 所以使四方皆見, 京師陰蔽者.	
SES-6	혁거세 56(전2)	春正月 辛丑朔	日有食之	『漢書』哀帝紀. 元壽元年, 春正月辛丑朔, 日有蝕之. 『漢書』五行志. 元壽元年, 正月辛丑朔, 日有食之. 不盡如鉤, 在營室十度.	
SES-7	혁거세 59(2)	秋九月 戊申晦	日有食之	『漢書』平帝紀. 元始二年, 九月戊申晦, 日有蝕之. 『漢書』五行志. 平帝元始二年, 九月戊申晦, 日有食之, 既.	
SES-8	남해 3(6)	冬十月 丙辰朔	日有食之	『漢書』王莽傳. 孺子嬰居攝元年, 冬十月丙辰朔, 日有食之.	

SES-9	남해 13(16)	*秋七月 戊子晦 秋六月 戊子朔	日有食之	『漢書』王莽傳. 王莽天 鳳三年, 七月戊子晦, 日有食之.	王莽의 改曆 으로 1개월이 당겨짐. 종래 의 역법으로는 六月임.
SES-10	지마 13(124)	秋九月 庚申晦	日有食之	『後漢書』安帝紀. 延光 三年, 九月庚申晦, 日 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延光 三年, 九月庚寅晦, 日 有蝕之, 在氐十五度. *庚申晦가 正.	* 고 구 려 SEG-3과 중복.
SES-11	지마 16(127)	秋七月 甲戌朔	日有食之	『後漢書』順沖質帝紀. 順帝永建二年, 七月甲 戌朔,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永建 二年, 七月甲戌朔, 日 有蝕之, 在翼九度.	
SES-12	일성 8(141)	秋九月 辛亥晦	日有食之	『後漢書』順沖質帝紀. 順帝永和六年, 九月辛 亥晦, 日有蝕之. 『後漢書』五行志. 永和 六年, 九月辛亥晦, 日 有蝕之, 在尾十一度.	
SES-13	아달라 13(166)	春正月 辛亥朔	日有食之	『後漢書』桓帝紀. 延熹 九年, 春正月辛亥朔,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延熹 九年, 正月辛卯朔, 日 有蝕之. 在營室三度, 史 官不見, 郡國以聞. *辛卯朔이 正.	*『삼국사기』 는 잘못된 朔 日을 轉寫?
SES-14	별휴 3(186)	*夏五月 壬申晦 夏五月 壬辰晦	日有食之	『後漢書』靈帝紀/五行 志, 靈帝中平三年, 五月壬辰晦日有食之	*원문의 壬申 晦는 壬辰晦 의 옳기. 『三 國史節要』에 壬辰晦로 기 록. * 고 구 려 SEG-8과 중복
SES-15	별휴 10(193)	春正月 甲寅朔	日有食之	『後漢書』獻帝紀. 初平 四年, 春正月甲寅朔,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初平四年, 正月甲寅朔, 日有蝕之, 在營室四度.	
SES-16	별휴 11(194)	夏六月 乙巳晦	日有食之	『後漢書』獻帝紀/五行志. 興平元年, 六月乙巳晦, 日有蝕之.	
SES-17	내해 5(200)	秋九月 庚午朔	日有食之. 大關於關川.	『後漢書』獻帝紀/五行志. 建安五年, 九月庚午朔, 日有食之. 潛潭巴曰, 庚午蝕後, 火燒官兵.	후한과 신라에서 공히 食 이후에 군병 사열이 이루어짐.
SES-18	내해 6(201)	春三月 丁卯朔	日有食之	『後漢書』獻帝紀. 建安六年, 春三月丁卯朔, 日有食之. 『後漢書』五行志. 建安六年, 十月癸未朔, 日有蝕之. *獻帝紀의 ‘三月丁卯朔’은 ‘二月丁卯朔’의 誤記. 이 해에 三月丁卯朔은 불가능. *五行志의 ‘十月癸未朔’도 ‘二月丁卯朔’의 誤記. 10월에 일식 없음.	*『三國史記』의 三月丁卯朔은 『後漢書』獻帝紀의 誤記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가능성이 큼.
SES-19	첨해 10(256)	冬十月 晦	日有食之	독자 기록	*일식 불가능
SES-20	원성 3(787)	秋八月 辛巳朔	日有食之	『舊唐書』本紀/『新唐書』本紀. 貞元三年, 八月辛巳朔, 日有蝕之. 『舊唐書』天文志. 貞元三年, 八月辛巳朔, 日蝕. 『新唐書』天文志. 貞元三年, 八月辛巳朔, 日有食之, 在軫八度.	
SES-21	원성 5(789)	春正月 甲辰朔	日有食之	『新唐書』本紀, 德宗貞元五年. 正月 甲辰朔, 日有食之 『新唐書』天文志, 德宗貞元五年. 正月 甲辰朔, 日有食之, 在營室	

				六度	
SES-22	원성 8(792)	冬十一月 壬子朔	日有食之	『舊唐書』 本紀/『新唐書』 本紀, 德宗貞元八年. 十一月 壬子朔, 日有食之 『舊唐書』 天文志, 德宗貞元八年. 十一月 壬子朔, 先是司天監徐承嗣奏, 據曆, 合蝕八分, 今退蝕三分 『新唐書』 天文志, 德宗貞元八年. 十一月 壬子朔, 日有食之, 在尾六度, 宋分也	
SES-23	애장 2(801)	夏五月 壬戌朔	日當食不食	『舊唐書』 本紀/『新唐書』 本紀, 德宗貞元十七年. 五月 壬戌朔, 日有蝕之 『舊唐書』 天文志, 德宗貞元十七年. 五月 壬戌, 蝕 『新唐書』 天文志, 德宗貞元十七年. 五月 壬戌朔, 日有食之, 在東井十度	*독자 기록?
SES-24	애장 9(808)	秋七月 辛巳朔	日有食之	『舊唐書』 本紀/『新唐書』 本紀, 憲宗元和三年. 七月 辛巳朔, 日有蝕之 『舊唐書』 天文志, 憲宗元和三年. 七月 癸巳, 蝕 (*辛巳의 오기) 『新唐書』 天文志, 憲宗元和三年. 七月 辛巳朔, 日有食之, 在七星三度	
SES-25	헌덕 7(815)	秋八月 己亥朔	日有食之	『舊唐書』 本紀/『新唐書』 本紀, 憲宗元和十年. 八月 己亥朔, 日有蝕之 『舊唐書』 天文志, 憲宗元和十年. 八月 己亥	

				朔, …皆蝕 『新唐書』天文志, 憲宗元和十年. 八月 己亥朔, 日有食之, 在翼十八度	
SES-26	한덕 10(818)	夏六月 癸丑朔	日有食之	『舊唐書』本紀/『新唐書』本紀, 憲宗元和十三年. 六月 癸丑朔, 日有食之 『舊唐書』天文志, 憲宗元和十三年. 六月 癸丑朔, …皆蝕 『新唐書』天文志, 憲宗元和十三年. 六月 癸丑朔, 日有食之, 在興鬼一度, 京師分也	
SES-27	홍덕 11(836)	春正月 辛丑朔	日有食之	『新唐書』本紀, 文宗開成元年. 正月 辛丑朔, 日有食之 『新唐書』天文志, 文宗開成元年. 正月 辛丑朔, 日有食之, 在虛三度	
SES-28	문성 6(844)	春二月 甲寅朔	日有食之	『舊唐書』天文志, 武宗會昌四年. 二月 甲寅朔, …皆蝕 『新唐書』本紀, 武宗會昌四年. 二月 甲寅朔, 日有食之 『新唐書』天文志, 武宗會昌四年. 二月 甲寅朔, 日有食之, 在營室七度	
SES-28	진성 2(888)	春三月 戊戌朔	日有食之	『新唐書』本紀, 僖宗文德元年. 三月 戊戌朔, 日有食之, 既 『新唐書』天文志, 僖宗文德元年. 三月 戊戌朔, 日有食之, 在胃一度	
SES-30	효공 15(911)	春正月 丙戌朔	日有食之	『舊五代史』梁書 /『新五代史』司天考, 後梁	

				太祖乾化元年. 正月 丙戌朔, 日有蝕之 『遼史』本紀, 遼太祖五年. 春正月 丙戌朔, 日有食之 『新五代史』梁臣傳, 後梁太祖乾化元年. 正月庚寅, 日有食之 (*干支 오류)	
--	--	--	--	--	--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가운데 중국 사서에서 대응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독자적인 일식 기록은, SEG-11(554, 고구려 양원왕 10년)과 SES-19(256, 신라 첨해 이사금 10년)의 두 경우이다.⁵² 전체 일식 기록 가운데, 회일에 일식이 일어난 경우는 총 28회(고구려 8회, 백제 9회, 신라 11회)인데, 이 가운데 회(晦)만 표시하고 간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오로지 이들 두 경우뿐이다.⁵³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경우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독자 기록이며, 현대적인 계산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일식이다. 따라서 필자는 『삼국사기』의 편찬 당시(12세기) 이들 두 일식 기록에는 애초부터 역일 간지가 없었으며, 나아가 이들 일식 기록은 중국 사서에서 대응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삼국사기』 편찬자가 회일 간지를 확정하여 덧붙이지 못했다고 추정한다.

『삼국사기』 일식 기록 가운데 회삭과 역일 간지가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SEG-1(114, 고구려 태조 62년)과 SEG-2(116, 고구려 태조왕 64년)의 두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들 일식은 중국 사서에 분명히 대응 기록이 있는데도 어째서

⁵² 『삼국사기』에 수록된 일식 기록 가운데, 중국 사서에서 대응 기록을 찾을 수 없거나 중국 사서의 기록과 다른 경우는, 총 4개 있다. SEG-11(고구려, 陽原王 10년(554) 冬十二月晦), SEB-5(백제, 蓋婁王 38년(165) 春正月丙申晦), SEB-21(백제, 東城王 16년(494) 夏五月甲戌朔), SEB-19(신라, 沾解尼師今 10년(256) 冬十月晦)가 그것이다. 그러나 앞의 <표1>의 비교란에 밝혔듯, 이 가운데 SEB-5와 SEB-21은 사소한 연대 표기 오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먼저 SEB-5의 “蓋婁王 28年”은 『삼국사절요』에서 확인되듯이 “蓋婁王 38年”의 오키가 명확하다. 또한 SEB-21의 경우, “백제 본기”의 기록은 “東城王十七年, 夏五月甲戌朔”이지만, 이 해(495)의 “夏五月”은 “甲戌朔”이 되지 않는다. “夏五月甲戌朔”이라는 月朔과 朔日 干支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언제인지를 시기 495년 근처의 중국 기록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北魏太和 18年(南齊 降昌 元年) 즉 東城王 16年(494)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또한 『삼국사기』의 연대 표기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이자와 이하 거의 모든 선행 연구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⁵³ 앞서 말했듯이, SEG-6에도 회일 간지가 없지만, 이것은 SEB-5와 동일 기록이고 거기에 “正月丙申晦”로 회일 간지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회삭과 간지가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것일까. 필자는 이에 대해 『삼국사기』의 편자들은 이들 일식의 대응 기록을 중국 사서에서 찾아내기는 했지만, 그 정보만 가지고는 이들 일식이 발생한 날짜의 간지는 물론 회삭 여부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SEG-1의 대응 기록은 『후한서』 “안제기(安帝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초 원년, 삼월 계유일에 일식이 있었다(元初元年, 三月癸酉, 日有食之)”라는 기록을 보면 회삭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당시의 역일에 따르면, 삼월계유(三月癸酉)는 3월 12일이고, 이날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⁵⁴ 『삼국사기』의 찬자도 이런 불합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고구려 본기” 찬자는 고구려의 원래 일식 기록(SEG-1)과 일치시킬 수 있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찾았지만, 회삭 여부는 물론 날짜마저도 불합리한 기록에서 정보를 채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회삭과 역일 간지가 모두 없는 두 번째 경우인 SEG-2(116, 태조왕 64년)도 SEG-1과 비슷하다. SEG-2 또한 『후한서』 “안제기”에 “원초 3년, 3월 신해일에 일식이 있었다(元初三年, 三月辛亥, 日有食之)”라는 대응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한 『후한서』 “오행지”의 기록을 보면 “원초 3년 3월 2일 신해에 루성 5도에서 일식이 있었으나 사관이 관측하지 못하고 요동에서 전해 들었다(元初三年, 三月二日辛亥, 日有蝕之, 在婁五度, 史官不見, 遼東以聞)”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기록은 수도인 낙양(洛陽) 근처에서 관측한 결과가 아니라, 요동 지역에서 관측된 일식의 소문을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월 2일은 일식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단지 일식의 소문이 전해진 날짜일 뿐이므로, 이 일식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다. 현대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 일식은 한반도 북부 고구려 지역에서는 일출과 동시에 일어난 금환식이며, 낙양에서는 동트기 전에 끝나버려서 관측할 수가 없었다.⁵⁵ 결국 “고구려 본기” 찬자의 입장에서는 이 일식 또한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을 찾았지만, 그 기록을 가지고 회삭 여부는 물론 일식의 날짜도 확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⁶

54 劉次沅은 “元初元年(114), 三月癸酉, 日有食之”의 기록이 이 보다 앞서 기록된 “永初元年(107), 三月癸酉, 日有食之”의 誤記로 본다. 永初元年, 三月癸酉日是 3월 2일이다. 劉次沅, 『諸史天象記錄考證』(北京: 中華書局, 2015), 28.

55 齊藤國治·小澤賢二, 『中國古代の天文記錄の檢證』(각주 13), 108.

56 『삼국사기』의 찬자들이 태조왕대의 일식 기사에 간지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의 초기 세 왕대(태조왕·차대왕·신대왕)의 紀年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가

이번에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있는 일식 기록을 통해 『삼국사기』의 찬자가 중국 사서의 역일 정보를 채용하여 『삼국사기』의 일식 기사에 첨입해 넣었을 가능성을 점검해 보자. 예를 들어, SEB-20(478, 백제 삼근왕 2년)의 일식은 『남사(南史)』의 기록(昇明二年, 三月己酉朔)과 대응한다. 그런데 현대적인 계산으로는 이 일식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나아가 이 기록에서 “삼월 기유삭(三月己酉朔)”은 애초에 『남사』의 기록 착오로 실제로는 “삼월 무신삭(三月戊申朔)”이 되어야 한다. 즉 『삼국사기』의 찬자는 백제의 일식 기록을 애초에 잘못 기재된 중국의 기록에 일치시키고 그로부터 월삭(月朔)과 역일 간지를 채용하여 “백제 본기”에 첨가함으로써 대단히 불합리한 일식 기록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신라의 일식 기록인 SES-13(166, 아달라이사금 13년)의 삭일 간지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이해 춘정월은 신묘삭(辛卯朔)이지만, “신라 본기”에는 신해삭(辛亥朔)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한서』 “환제기”에 오기된 신해삭을 “신라 본기”의 편찬자가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삼국사기』의 최초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중국 기록과 연관이 없는 단순한 오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SES-18(201년, 내해이사금 6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 기록의 오류를 채용한 것이다. 201년(내해이사금 6년) “삼월 정묘삭(三月丁卯朔)”은 애초에 『후한서』에서 “이월 정묘삭(二月丁卯朔)”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신라 본기”의 편찬자는 이 일식을 애초에 부정확한 『후한서』의 기록에 일치시켰고, 그로부터 “삼월 정묘삭(三月丁卯朔)”을 채용하여 “신라 본기”에 첨입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식 이외에 역일 간지가 부기된 천문 기록을 검토해보자. <표 2>에 정리한 것처럼, 『삼국사기』에서 역일 간지가 표시된 일식 이외의 천문 기록은 총 15개이다.

표 2. 역일 간지가 표시된 천문 기록 (일식 기록 제외)

	역일 간지가 표시된 천문 기록 (일식 기록 제외)	비고 (중국 기록과 일치 여부)
고구려	①고국천왕 4년(182): 春三月甲寅, 夜赤氣貫於太微. ②고국천왕 8년(186): 夏四月乙卯, 熒惑守心.	①은 중국 기록에서 확인 안 됨. ②는 중국 기록과

능성도 있다. 고구려의 초기 기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75-84 참조.

		일지.
백제	①기루왕 9년(85): 夏四月乙巳, 客星入紫微. ②개루왕 10년(137): 秋八月庚子, 熒惑犯南斗一. ③고이왕 16년(249): 春正月甲午, 太白襲月. ④비류왕 33년(336): 春正月辛巳, 彗星見于奎. ⑤전지왕 11년(415): 夏五月甲申, 彗星見. ⑥전지왕 15년(419) 春正月戊戌, 星孛于太微. ⑦성왕 10년(532): 秋七月甲辰, 星隕如雨. ⑧성왕 12년(534): 夏七月丁卯, 熒惑犯南斗. ⑨성왕 27년(549): 春正月庚申, 白虹貫日. ⑩위덕왕 41년(595): 冬十一月癸未, 星孛于角亢.	10개의 기록 모두 중국 기록과 일치함. ①은 『後漢書』 章帝紀에서 丁巳를 乙巳로 誤記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듯함. 『後漢書』 天文志에는 丁巳임.
신라	①혁거세거서간 54년(B.C. 4): 春二月己酉, 星孛于河鼓. ②일성니사금 10년(143): 夏六月乙丑, 熒惑犯鎮星. ③현강왕 11년(885): 冬十月壬子, 太白晝見.	①, ② 모두 중국 기록과 일치함(①의 중국 기록은 春三月). ③은 독자 기록.

<표 2>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분석 대상으로 삼은 14건⁵⁷⁾의 기록 가운데, 고국천왕 4년(182) “봄 3월 갑인, 밤에 적기가 태미원을 관통하였다(春三月甲寅, 夜赤氣貫於太微)”의 단 1건의 기록을 제외하고,⁵⁸⁾ 13건의 천문 기록에 표시된 역일 간지가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에 표시된 것과 일치한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천문 기록에 표시된 역일 간지가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으로부터 채용한 것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위와 같은 예들을 통해, 『삼국사기』 천문 기록에 표시된 역일 간지는, 『삼국사기』 편찬 시의 원 사료에는 없던 정보이며, 이는 『삼국사기』 찬자가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으로부터 채용하여 덧붙인 정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식 기록의 경우, 『삼국사기』 찬자는 삼국에서 전승된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기록을 중국 사서의 기록에 대응시켜 일식 발생 당시의 회식 여부와 역일 간지를 확정하였고, 이로부터 확정된 역일 간지를 채용하여 원래의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에 첨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식 이외의 천문 기록에 포함된 역일 간지 또한 삼국에 전승되어온 원래의 천문 기록에는 없었던 정보이며, 이는 중국 사서에서 대응 기록을 확인한 다음 그로부터 채용하여 덧붙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의 독자 기록으로 추정되는 천문 기록의 경우, 즉 중국 사서에서

57 이 가운데, 신라 현강왕 11년(855) 10월의 태백주현 기록은 신라의 독자 기록일 뿐 아니라, 신라의 역법 지식이 높은 수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9세기 중반의 기록이므로,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중국 기록 의존성을 점검할 자료가 되지 못하여 논외로 한다.

58 이 기록이 고구려의 독자 관측으로 얻은 것인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응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천문 기록에는 역일 간지가 거의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이런 추론을 지지해준다.⁵⁹ 신라 최초의 일식 기록인 혁거세거서간 4년(기원전 54) 4월 신축삭(辛丑朔)의 일식 기록에는, 기원전 54년의 기록임에도 회삭과 역일 간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한반도 삼국에서 역일 간지를 표시하는 일은,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5세기 초 이후에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된다.⁶⁰ 따라서 위의 기재 내용 전체를 혁거세 당시의 실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삼국사기』 찬자가 역일 간지가 없는 원래의 천문 기록에 중국 사서의 기록을 채용하여 역일 간지를 확정하여 첨가했다고 추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SES-19(신라, 256년)와 SEG-II(고구려, 554년)의 일식 기록처럼, 독자 기록이면서 “회(晦)”가 표시된 기록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보면, 삼국의 일식 기록 가운데 일부에는 원래부터 회삭(晦朔)의 정보도 기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역일 간지는 삼국에서 작성한 원래의 천문 기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삼국에서 역일의 사용이 일반화 한 것으로 생각되는 5세기 이후에도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는 독자적인 천문 기록에는 역일 간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성좌 명이 표시된 천문 기록의 분석

박성래에 따르면, 중국의 재이론과 재이의 기록 방식이 한반도 삼국에 수용된 시기는 300-500년 사이로 추정된다.⁶¹ 나아가 고구려 고분의 건조 연대와 무덤 벽화에 그려진 성좌 그림의 유행 양상을 볼 때, 삼국에서 중국식 성좌 체계에 대한 지식이 널리 활용된 시기는 대체로 400년 이후로 보인다.⁶² 그런데 혁거

⁵⁹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창범·라대일이 『삼국사기』 천문 기록 각각에 대해 독자성 여부를 판정하여 정리한 표를 참조. 박창범·라대일, “삼국 시대 천문 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각주 4), 171-175.

⁶⁰ 삼국에서 연차·월차보다 더 정밀한 역일(曆日, 숫자 역일 혹은 간지 역일)을 사용하고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금석문들이 4세기 경부터 출토하고 있으며, 5세기 초부터는 그 사례가 증가하고 나아가 정확한 삭일 간지가 포함된 역일도 발견되고 있다. 전용훈, 『한국천문학사』(들녘, 2017), 88, 92-100 등 참조.

⁶¹ Park Seong-rae, *Portents and Politics in Korean History*, 24.

⁶² 별 혹은 별자리 형상이 그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이 안악 3호분(357년)이다. 고려 고분벽화의 별 그림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考定”, 『白山學報』 47 (1996), 51-106; 박창범·양홍진, “고구려의 고분 벽화 별자리와 천문체

세거서간 9년(기원전 49) 3월 “해성이 왕량에 나타났다(有星孛于王良)”는 기록은 해성이 출현한 위치를 왕량(王良)이라는 성좌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과연 기원전 49년의 신라에서 중국식 성좌 체계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천문 현상이 발생한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삼국사기』에서 천문 현상의 발생 위치를 성좌 명으로 표시한 기록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3>은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 가운데 성좌 명이 사용된 기록만을 추출하여, 나라별·시대별로 정리하고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⁶³ 기록들 사이에 성좌 명이 중복되는 것들도 많아 기록의 개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삼국사기』에서 이와 같이 성좌 명으로 천문 현상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기록은 약 50건 정도 된다.

표 3. 성좌명이 표시된 천문 기록

나라	성좌 명	출전 연대	기사 내용	중국 사서 대응 기록
고구려 (전37~668)	心星	전7(유리왕 13) 1월	熒惑守心星 *중국 사서의 오류를 답습?	『漢書』天文志二年，綏和二年春，熒惑守心。 *心은 角의 誤記。(齊藤國治 1985).
	北斗	158(차대 13) 2월	星孛于北斗	독자 기록
	太微 (大微)	182(고국천 4) 3월 甲寅	夜赤氣貫於太微	독자 기록
		182(고국천 4) 7월	星孛于太微	『漢書』靈帝紀
	心	186(고국천 8) 4월 乙卯	熒惑守心	『漢書』天文志
백제 (전18~660)	畢 昂	668(보장 27) 4월	彗星見於畢昂之間	『舊唐書』本紀
	紫微	85(기루 9) 4월 乙巳 *丁巳의 誤記	客星入紫微	『後漢書』章帝紀·天文志 *신라 파사왕 6년 기록과 동일.
	南斗一	137(개루 10) 8월 庚子	熒惑犯南斗一	『後漢書』天文志

계”, 『한국과학사학회지』 31:1(2009), 1-45.
⁶³ 이 표는 박창범·라대일, “삼국 시대 천문 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 171-175의 표에 기초하여, 필자가 확인한 여러 관련 정보를 더 첨가한 것이다.

	角	191(초고 26) 9월	蚩尤旗見于角亢	『後漢書』獻帝紀
	亢	595(위덕 41) 11월 癸未	星孛于角亢	『北史』隋本紀/ 『隋書』高祖·天 文下
	東井	204(초고 39) 10월	星孛于東井	『後漢書』獻帝紀
	紫宮	269(고이 36) 9월	星孛于紫宮	『宋書』天文志/ 『晉書』武帝紀· 天文志
	奎	336(비류 33) 1월 辛巳	彗星見于奎	『晉書』成帝紀· 天文志/ 『宋書』 天文志
			400(아신9) 2월 星孛于奎婁	『宋書』天文志/ 『晉書』安帝紀· 天文志
	北河	390(진사 6) 7월	星孛于北河	『晉書』天文志/ 『宋書』天文志
	婁	400(아신 9) 2월	星孛于奎婁	『宋書』天文志/ 『晉書』安帝紀· 天文志
	太微 (大微)	419(전지 15) 1월 戊戌	星孛于太微	『晉書』恭帝紀· 天文志
신라 (전58-669)	南斗	534(성왕 12) 4월 丁卯	熒惑犯南斗	『梁書』武帝紀
	王良	전49(혁거세 9) 3월	有星孛于王良	『漢書』宣帝紀· 天文志
	參	전44(혁거세 14) 4월	有星孛于參	『漢書』天文志
	河鼓	전4(혁거세 54) 2월 *三月の 誤記?	星孛于河鼓	『漢書』哀帝紀 *중국 기록은 乾 平 3年(전 4)三 月임.
	太微 (大微)	23(남해 20) 秋	太白入太微	『後漢書』光武 帝紀
	紫宮	54(유리 31) 2월	星孛于紫宮	『後漢書』光武 帝紀
	天船	59(탈해 3) 6월 *脫解 4年の 誤記?	有星孛于天船	『後漢書』明帝紀 ·天文志 *중국 기록은 永 平 3年(60)임.
			668(문무 8) 4월 彗星守天船	『舊唐書』本紀 高宗
	紫微	85(파사 6) 4월	客星入紫微	『後漢書』章帝紀

				·天文志
	天市	149(일성 16) 8월	有星孛于天市	『後漢書』 桓帝紀
	角	191(별후 8) 9월	蚩尤旗見于角亢	『後漢書』 天文志
	亢			
	心大星	579-632(진평왕)	彗星犯心大星 *『삼국유사』 용천사 해석가	독자 기록
통일 신라 670-935	北河	676(문무 16) 7월	彗星出北河積水之間, 長六七許步	『舊唐書』 天文志
	積水			·本紀 高宗 / 『新唐書』 本紀 高宗 ·天文志
	羽林	679(문무 19) 4월	熒惑守羽林	『舊唐書』 本紀 高宗
	參大星	679(문무 19) 6월	流星犯參大星	독자 기록
			681(문무 21) 5월 流星犯參大星	독자 기록
	五車	683(신문 3) 10월	彗星出五車	『舊唐書』/『新唐書』 本紀 高宗 ·天文志
		770(혜공 6) 5월 11일	五月十一日, 彗星出五車北, 至六月十二日滅 *원문은 五章.	『舊唐書』/『新唐書』 本紀 代宗 ·天文志
	庶子星	715(성덕 14) 9월	太白掩庶子星	독자 기록
	紫微	715(성덕 14) 10월	流星犯紫微	독자 기록
			810(헌덕 2) 7월 流星入紫微	독자 기록
	天倉	715(성덕 14) 12월	流星自天倉入太微	독자 기록
	大微 (太微)		737(효성 1) 9월 流星入太微	독자 기록
	昴 奎	718(성덕 17) 10월	流星自昴入于奎, 衆小星隨之	독자 기록
	軒轅大星	740(효성 4) 5월	鎮星犯軒轅大星	독자 기록
	參大星	742(효성 6) 5월	流星犯參大星	독자 기록
	心	765(경덕 24) 6월	流星犯心	독자 기록
	東井	790(원성 6) 4월	太白鎮星聚于東井	독자 기록
	王良	810(헌덕 2) 10월	流星入王良	독자 기록

		823(현덕 15) 4월 12일	流星起天市, 犯帝座, 過天市東北垣織女王良, 至閣道, 分爲三. 聲如擊鼓而滅.	독자 기록
	翼	815(현덕 7) 8월	大星出翼軫間, 指庚, 芒長六許尺, 廣二許寸	독자 기록
	軫			
	天市	823(현덕 15) 4월 12일	流星起天市, 犯帝座, 過天市東北垣織女王良, 至閣道, 分爲三. 聲如擊鼓而滅.	독자 기록
	帝座			
	天市東北垣			
	織女			
	閣道			
	老人星	934(경순 8) 9월	老人星見	독자 기록

일찍이 중국의 시원리(石云里)가 지적했듯이,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에 사용된 성좌 명과 성좌 체계는 중국 전통의 삼원이십팔수(三元二十八宿) 체계이다.⁶⁴ 천문 기록에는 자미원(紫微垣), 태미원(太微垣), 천시원(天市垣), 그리고 적도를 따라 분포하는 이십팔수가 보이고, 그 외에 북두(北斗, 북두칠성), 하고(河鼓), 천선(天船), 왕량(王良), 우림(羽林) 등 개별 성좌도 여러 개 등장한다.

각각의 기록에 대해 중국 사서에 있는 대응 기록을 찾아보면, 전체 기록에 일관된 하나의 분명한 특징을 간취할 수 있다. 즉 삼국통일 이전은 삼국의 거의 모든 기록에 대해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존재하며, 통일 이후의 기록은 거의 모두 독자 기록이다. 통일 이전의 기록이면서도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 뿐인데, 모두 “고구려 본기”에 있다. 고구려 차대왕 13년(158) 2월의 패성(亨星) 기록[“星亨于北斗”]과 고구려 고국천왕 4년(182) 3월 갑인일(甲寅日)의 적기(赤氣) 기록[夜赤氣貫於太微]이 그것이다.⁶⁵

신라의 경우 통일 이전 669년까지 성좌가 표시된 기록은 총 14개인데, 이 가운데 『삼국유사』에 기록된 심대성(心大星)을 제외하면, 모두 『한서』, 『후한서』 등에 대응 기록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 이전의 천문 기록 가운데 신라의

64 石云里, “古代中國天文學在朝鮮半島的流傳和影響”, 『大自然探索』 2 (1997), 120.

65 이 두 가지 경우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2세기 고구려의 천문 관측과 기록의 양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현재는 대응 기록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이 기록도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는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독자 기록에는 성좌 명 표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혜성이 동방에서 보였다(彗星見東方)”(79, 탈해 23년 6월), “별의 꼬리가 동방에 뻗었다. 20일이 지나 사라졌다(星孛于東方, 二十日而滅)”(260, 첨해 14년 7월), “하늘이 붉고 큰 별이 북에서 동남으로 흘러갔다(天赤大星, 自北流東南)”(467, 자비 10년 9월), “혜성이 남방에 나타났다(彗星出於南方)”(647, 진덕왕 1년 8월) 등의 천문 기록에는, 현상의 발생 위치와 방향을 동서남북(東西南北) 등으로 대략만 지시할 뿐이다.⁶⁶

고구려의 경우, 성좌 명 표시 기록은 6건으로 삼국 가운데서 이런 기록의 수가 가장 적다. 앞서 언급한 차대왕 13년(158) 2월과 고국천왕 4년 3월의 두 기록을 제외하면, 성좌 명이 표시된 기록은 모두 중국 사서에 동일한 기록이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기록에서도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 기록에서는 동방(東方), 서북(西北) 등으로 대략의 위치와 방향만을 지시할 뿐이다. 동일한 특징이 백제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백제의 천문 기록 가운데 성좌 명이 표시된 것은 모두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존재하며,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는 독자 기록에서는 성좌 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라 및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독자 기록에는 “(별의 꼬리가 서북으로 뻗었다. 20일이 지나 사라졌다(星孛于西北, 二十日而滅))”(186, 초고왕 21년 10월), “큰 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大星西流)”(316, 비류왕 13년 봄)와 같이 현상의 발생 위치와 방향을 동서남북 등으로 대략 지시할 뿐이다.⁶⁷

이상과 같이 현상의 발생 위치와 방향을 성좌 명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천문 기록이 드러내는 특징을 감안하여,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성립 과정을 추론해보자. 우선 205년(백제 초고왕 40, 신라 내해니사금 10) 7월의 “금성이 달을 범했다(太白犯月)”는 기록처럼, 백제와 신라 양쪽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한 천문 현상을 기록한 것을 보면,⁶⁸ 400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삼국에서 각기

66 박창범·라대일, “삼국 시대 천문 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 171-175의 표에 수록한 독자 기록을 보아도 이런 특징을 쉽게 간취할 수 있다.

67 김일권도 백제의 천문 기록 중 독자 기록에 대해, 필자가 간취한 것과 동일한 특징을 지적한다. 그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는 경우 “전반적으로 첫째, 천변발생의 날짜 표기가 모두 없고, 둘째, 천변설명에서 경성 별자리 명칭이 하나도 없이 동방, 서북 등 방위로 표시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일권, “『삼국사기』 고구려·백제의 별자리목록과 천문성변기록 분류 연구”(각주 34), 456.

68 『삼국사기』 권23, “백제 본기 1”, 肖古王 40년(205) “秋七月, 太白犯月.”; 『삼국사기』 권2, “신라 본기 2”, 奈解尼師今 10년(205), “秋七月, 霜電殺穀, 太白犯月.”

천문 관측이 행해졌고 그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또 “백제 본기”에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는 독자 기록으로 비유왕 28년(454) 조에 “별의 꼬리 길이가 서북으로 뻗었는데, 2장(丈) 정도 되었다(星亭于西北, 長二丈許)”는 기록이 있다.⁶⁹ 이 기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꼬리 길이가 “2장”이라고 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예를 볼 때, 삼국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였으며, 이것이 『삼국사기』 편찬 시까지 전승되어 편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성좌 명이 표시된 천문 기록은 거의 모두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삼국에서 전승되어 온 기초 자료에는 천문 현상의 발생 위치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현상의 발생 위치와 방향은 동서남북 등으로 대략만 표시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삼국사기』 찬자는 중국 사서에서 동일한 천문 현상의 발생 위치와 방향이 성좌 명으로 표시된 대응 기록을 확인한 경우, 이 성좌명 정보를 채용하여 원래의 기록에 첨입하였을 것이다.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으로부터 성좌 정보를 채용한 결과, 『삼국사기』 천문 기록의 정보 기입 방식은 대응 기록이 있는 경우와 독자 기록의 경우로 확연히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에는 신라에서도 천문 기록에 성좌 명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짐작된다. <표 3>에서 통일 이후로 시대가 내려가면서 신라의 독자적인 관측 기록에 성좌 명의 표시가 많아지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⁷⁰ 이에 더하여 관측 기록 또한 통일 이전보다 상세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헌덕왕 15년(823)의 유성 기록으로, 여기에는 4월 12일이라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유성이 천시(天市)에서 일어나서 제좌(帝座)를 지나서 계속해서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천시원의 동북쪽 담장을 넘어 지녀(織女)와 왕량(王良) 부근을 지나 각도(閣道)에 이르러서 셋으로 갈라졌다고 기록하였다.⁷¹ 이처럼 유성의 궤적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통일 이후 신라에서 중국식 성좌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 관측과 기록이 매우 상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⁷²

69 『삼국사기』 권25, “백제 본기 3”, 毗有王 28년(454), “彗亭于西北, 長二丈許.”

70 이와 같은 특징은, 통일 이후의 성좌명이 표시된 천문기록에 대해 분석한 김일권도 지적한 바 있다. 김일권,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별자리목록과 천문성변기록 분류 연구”(각주 34), 642-655 참조.

71 『삼국사기』 권10, “신라 본기 10” 헌덕왕 15년(823). “四月十二日, 流星起天市, 犯帝座, 過天市東北垣織女王良, 至閣道, 分爲三. 聲如擊鼓而滅.”

5. 맺음말

20세기 초에 삼국의 일식 기록 가운데 단 두 건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로 인해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설 혹은 조작설은 새로운 근거를 얻게 되고, 이후 삼국 시대 천문 기록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편에서는, 여러 증거와 추론을 통해 『삼국사기』 천문 기록이 독자적인 관측과 기록의 결과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동일한 천문 현상에 대해 중국 사서에 대응하는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자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존재하는 삼국의 천문 기록은 모두 중국 사서에서 전사(轉寫) 혹은 전재(轉載)한 것으로 보고,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 독자 기록으로 인정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팽배하였다.

하지만 『춘추(春秋)』 이래 유가적 역사학의 가치를 체득한 『삼국사기』의 찬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의 사서를 전재하여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날조와 조작의 대상이 천문 기록이라면, 그런 상상은 더욱 어렵다.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치통감(資治通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⁷³ 그리고 사마광은 “사실을 사실로써 전하는” 것을 역사 서술의 기본 태도로 삼았던 사람이다.⁷⁴ 필자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와는 관점과 방법을 달리하여,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있는 천문 기록을 재검토하고, 삼국의 천문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기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변형을 거쳤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찍이 박성래가 『삼국사기』 일식 기록에 대해 추정했듯이, 중국 사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삼국에서 전해 내려온 원래의 근거 기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만일 전해 내려온 근거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국 사서의 기록을 임의로 『삼국사기』에 첩입하였다고 한다면, 중국 사서에 기록된 수많은 천문 기록 가운데

72 9세기 초에는 별이 내뿜는 빛살의 길이와 넓이까지 기록한 경우도 있다. 『삼국사기』 권10, “신라 본기 10”, 헌덕왕 7년(815) 8月. “大星出翼軫間, 指庚. 芒長六許尺, 廣二許寸.”

73 정구복 등, “삼국사기 해제”, 『역주 삼국사기(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4-27.

74 中田謙二, 백영서 역, “자치통감의 이해”,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985), 321.

왜 특정한 기록만이 선택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필자는 본문에서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 가운데 역일 간지와 성좌 명을 표시한 기사에 대해,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여기에 기재된 정보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몇 건의 예외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들 기록에 들어 있는 역일 간지와 성좌 명 정보는 『삼국사기』 찬자들이 중국 사서의 대응 기록에서 채용하여 첨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아가 이런 분석을 통해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삼국사기』의 찬자들 앞에는 삼국 시대 이래로 전승되어 온 독자적인 천문 기록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이 기록들에 근거를 두고, 동일한 현상을 기록한 중국 사서를 참고하여, 천문 현상의 발생 시기와 발생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고자 했던 것 같다.

(투고: 2020년 3월 1일, 심사 완료: 2020년 3월 30일, 게재 확정: 2020년 4월 1일)

Reexamination of the Astronomical Records in *Samguk sagi* that Depended on Chinese Sources

JUN Yong Ho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bstract. To reexamine the authenticity of astronomical records in *Samguk sagi*, this paper analyzes two types of records in particular formats: 1) the records displaying dates by sexagesimal signs, and 2) the records informing the positions of astronomical phenomena regarding the constellations. My analysis shows that all records with sexagesimal date signs have corresponding records in Chinese historical books. This implies that the sexagesimal date signs were added to the original records, when *Samguk sagi* was compiled in 1145, us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corresponding Chinese records. All records informing the positions of astronomical phenomena regarding the constellations, before the late 7th century of unification, except for two cases, have Chinese corresponding records. This implies that the constellations were also added, when *Samguk sagi* was edited, to the original records by adopting those position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Chinese records.

Keywords. *Samguk sagi*, solar eclipse, astronomical record, Chinese correspondent record, sexagesimal date sign, constellation